

## 가계자산 보유 현황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노동패널(1998-2012) 자료를 중심으로

남 상 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자산분포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자산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자산, 총부채,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인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외에도 부풍요선(affluence line) 이상 인구의 비율,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등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위소득 점유율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총자산의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총부채의 불평등도는 반대로 높아지고 있었다. 지니계수로 본 순자산 불평등도는 2009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총소득 불평등도는 2007년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순자산에 대한 풍요율 추이는 소득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소득의 경우 완만하지만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순자산의 경우 2008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추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제어: 자산분포, 지니계수, 풍요선(affluence line), headcount ratio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johnnam@kihasa.re.kr)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자산분포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국내에는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를 아우르는 자산분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에는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득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산에 관한 신뢰성 있는 조사 자료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컸었다. 그 외에도 자산분포에 관한 이론의 개발이 더디고, 스톡(stock) 변수인 자산에 대한 실증분석 기법 또한 구비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공공정책의 목표 또한 빈곤완화를 위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만으로는 안락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 당장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일정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의 감소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분배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분석대상은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인데, 순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

현 시점에서 가계자산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家口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이동, 소득 및 소비 등을 추적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999년(제2차 조사)에서부터 2012년(제15차 조사)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sup>2)</sup>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자산분포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자산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자산, 총부채,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실제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남상호(2008)에서는 소득과 비교한 자산분포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소득은 0 또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자산은 음(-)의 값을 가지는 관찰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분포 분석에서와 같이 이들을 무시하게 되면 현실을 제

1) 12-13차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였다.

2) 최초 조사년도인 1998년은 설문 항목에 자산 관련 문항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산항목의 분포에서 나타나는데, 부채 또는 금융자산의 경우 밀도함수가 0 부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오른쪽으로 지우친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경우 3차 모멘트인 비대칭도가 소득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고, 오른쪽의 outlier들도 leverage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sup>3)</sup>.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항목별 불평등지수를 구하고, 추이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sup>4)</sup>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불평등지수를 소개하고,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방법을 소개한다. 3절에서는 자산항목별 분포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불평등지수의 요인분해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 II. 선행연구의 소개

### 1. 해외의 연구

소득분배에 관한 실증분석을 체계화 한 사람은 Simon Kuznets라고 한다. 그는 1950년대 초에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실증분석을 통하여 양자간에는 역-U자 관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에 와서야 새롭게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자는 Thomas Piketty인데, 그는 프랑스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에 걸친 상위소득집중도를 연구하였다(Piketty 2001). 또 Piketty(2003)에서는 1901-1998 기간에 대하여 프랑스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장기에 걸친 소득세 자료(1915-98), 임금소득 자료(1918-98), 그리고 상속세(1902-94)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임금 그리고 자산 불평등 장기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로부터 그는 20세기 초의 소득 불평등 감소는 우연에 기인하는 것이며,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임금소득 불평등은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또 소득불평등의 추세적 감소는 대부분 자본소득의 변동행태에 따른 것이었으며, 대부호들에게 1914-1945년에 걸친 전쟁은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또 그들은 누진적 조세체제로 인하여 이들 충격의 영향을 떨치고 과거의 우월적 지위를 되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Piketty and Saez(2003)에서는 1913-1998 기간의 미국에 대하여 개인별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분석하였다. 지난 세기에 걸쳐 상위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U-자 모양을

---

3) 따라서 여기서는 오른쪽의 특이향을 통제하는 top-coding을 도입하지 않았다.

4)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지니계수인데, 이 지표는 의미가 직관적이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표이다.

나타내었으며,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발생한 충격으로 자본소유자들은 자본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누진적 한계 소득세율과 부동산세율은 이들 충격으로부터 과거의 지위를 되찾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임금소득 상위그룹에서는 2차대전 이전에 있어서 점유율이 일정하였다가 전쟁 중에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고 한다. 그 결과, 근로소득 상위그룹들이 자본소유자를 대신하여 소득상위그룹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tkinson and Salverda(2003)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상위 소득 10, 5, 1, 0.5, 0.1%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Pareto-Lorenz 계수'를 사용한 상위소득 분포함수의 추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에 있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상위 점유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 영국의 경우 상위층 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kinson(2005)에서는 최고소득 점유율의 국제비교 연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조세제도나 조세회피도의 차이, 소득단위의 정의, 그리고 소득의 control total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들 문제가 특정시점에 있어서 최고소득 점유율의 비교, 시간에 따른 수렴이나 발산의 정도, 그리고 세계 소득의 분포에 있어서 한 나라의 변화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연구하였다.

Atkinson(2005)에서는 1908-2000년간 영국을 중심으로 소득세(Super Tax)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년도에는 미시자료(Survey of Personal Incomes)를 이용하여 90여 년간에 걸친 점유율 시계열 자료를 정비하였다. 그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최고소득자 그룹의 점유율을 분석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소위 U-자 형태의 추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Piketty(2005)에서는 장기에 걸친 소득분포의 변화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에 걸친 20여 개 국가의 소득세 자료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중요한 결론은 Kuznets의 U-자 형태의 소득분배 추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의 자본소득은 1914-1945년 기간의 충격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누진소득세와 부동산과세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보았다.

Saez(2005)는 20세기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고소득층 소득점유율을 분석하였다. 두 나라 모두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U-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2차 대전 때 점유율이 떨어진 이후 수십년 동안 높아지지 않고 있었다. 1900년대 전반의 점유율 하락은 자본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의 점유율 상승은 고소득자들의 임금소득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한계 소득세율을 현저하게 낮추었으나 캐나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 상승은 조세회피적인 행태로만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북미지역의 고소득층 소득점유율 상승은 항상소득의 집중도가 유사하게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Leigh(2007)에서는 선진 13개국의 소득세 자료로부터 상위소득점유율과 불평등지표(e.g.,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상위소득 점유율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을 통하여 신뢰성이 낮은 소득불평등 자료를 대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sup>5)</sup>

Atkinson and Leigh(2013)는 비교적 유사한 배경과 조세체계를 가진 5개의 앵글로-색슨 국가(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소득점유율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상위 1%의 점유율은 그 다음 4%의 점유율 추이에 비하여 더 높음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가 및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추면 최고소득 그룹의 소득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투자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추어도 상위 1%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인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Moriguchi and Saez(2008)를 들 수 있다. 1866-2005 기간에 대하여 상위소득그룹의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소득집중도 자료를 구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2차 대전 이전 기간에서는 소득집중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1938-1945 기간에서는 집중도가 급속하게 낮아졌음을 발견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소득집중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가 마지막 10년에는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최고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20세기 중 자본소득 중심에서 근로소득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였다. 전시 중에 소득집중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전시에 따른 규제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자본소득이 급속하게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1970년 이후 미국에서는 고소득층의 임금소득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지난 30년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처럼 근로소득 집중도는 노동시장과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적인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Peichl, et al. (2008)은 Mederios (2006)의 풍요척도를 확장하여 빈곤율에 대응되는 새로운 척도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되는 척도는 분석에 필요한 공리(axioms)를 모두 만족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이 척도를 이용하여 유럽 국가들의 빈곤과 풍요에 관한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풍요함(affluence) 척도를 이용하여 세계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단순한 구성비율(headcount ratio)을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풍요함에 대한 좀 더 정치한 분석이 가능한 척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 2. 국내의 연구

---

5)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13개 국가이다.

남상호(2008)에서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자산과 총소득의 Gini 계수는 0.731과 0.438로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순자산간의 상관계수는 미국(0.4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0.3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계층이 순자산의 16.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9.8%,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을 넘는 5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경우 상위 1% 계층이 순자산의 9.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0.9%, 그리고 상위 10%는 46.2%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이 소득보다 집중경향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동안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김낙년(2012)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976-2010년간의 소득 상위 10% 점유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가계조사자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상위소득자의 소득분포가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Atkinson식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소득집중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다. 둘째,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소득집중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었다. 셋째,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비중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었다. 넷째,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까지는 비교적 낮은 소득집중도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영미형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끝으로 미시자료에 기초한 분배지표는 소득불평등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III. 분석 방법

#### 1. 분석자료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가구소득은 '세후소득' 기준이며, 해마다 작년 한해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4차 년도(2011년) 조사부터는 '지난 한 달간 가구소득'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세부 소득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것과는 달리, 가계 자산 및 부채항목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에는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주택 등 부동산'이 포함되며,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타인임대', '부동산 임차' 및 '기타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한편 부채항목에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임대보증금', '(미리 타고) 부어야 할 계' 및 '기타 부채' 등이 포함된다.

## 2. 불평등지수

여기서는 분석에 사용될 불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Gini 지수이며 그 외에도 Atkinson지수, 대수편차 평균(mean log deviation: MLD)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sup>6)</sup>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Gini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sup>7)</sup>

$$\text{Gini} = \frac{1}{\mu n^2} \sum_{i=1}^N \sum_{j=1}^N |y_i - y_j| \quad (1)$$

여기서  $\mu$ 는 산술평균값,  $y_i$  및  $y_j$ 는  $i$ 번째 및  $j$ 번째 가구의 순자산, 그리고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한다.

Atkinson 지수는 사회후생함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算式은 다음과 같다.

$$A_\epsilon = 1 - \left[ \frac{1}{n} \sum_{i=1}^N \left( \frac{y_i}{\mu} \right)^{1-\epsilon} \right]^{\frac{1}{1-\epsilon}}, \quad \text{단 } \epsilon \neq 1, \epsilon > 0 \quad (2)$$

여기서  $\epsilon$ 은 사회구성원의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데, 그 값이 클수록 구성원들이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MLD} = \frac{1}{n} \sum_{i=1}^N \log \left( \frac{\mu}{y_i} \right) \quad (3)$$

Theil의 엔트로피(entropy) 지수는 정보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서의 엔트로피(entropy)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事前的으로 기대되는 정보량을 말한다. Theil은 이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ext{TE} = \frac{1}{n} \sum_i \left( \frac{y_i}{\mu} \right) \log \left( \frac{y_i}{\mu} \right) \quad (4)$$

여기서  $\mu$ 는  $y$ 의 평균값( $\mu \equiv \frac{1}{n} \sum_i y_i$ )이다. 불평등 요인별 분해에 많이 쓰이는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계열 지수는 Theil의 엔트로피 지수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킨 것이다.

6) Cowell(2000)에서는 다양한 소득불평등 척도를 소개하고 있다.

7) 이 식에서는 표본추출 가중치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실제 지수의 계산에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 \frac{1}{n} \sum_{i=1}^N \left( \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quad (5)$$

GE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대( $\infty$ )까지인데, 모든 자산이 동일하여 분배상태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 최소치 0을 가지며, 분배상태가 불평등할수록 그 값은 커진다. 또  $\alpha$ 의 값이 작을수록 하위자산계층의 자산변화에 민감하며,  $\alpha$ 의 값이 클수록 상위자산계층의 자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alpha = 0$ 이라면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는 L'Hopital 정리에 의하여 대수편차평균(MLD)과 같아진다. 즉,

$$GE(0) = \frac{1}{n} \sum_{i=1}^N \log\left(\frac{\mu}{y_i}\right) = \text{MLD} \quad (6)$$

또  $\alpha = 2$ 이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는 변동계수 제곱(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SCV)의 절반과 같아진다. 즉

$$GE(2) = \frac{1}{2} \left[ \frac{1}{N} \sum_{i=1}^N \left( \frac{y_i}{\mu} \right)^2 - 1 \right] = \frac{1}{2} \text{SCV} \quad (7)$$

끝으로  $\alpha = 1 - \epsilon$  ( $\alpha < 1$ )인 경우,  $GE(1 - \epsilon)$ 은 Atkinson지수와 동일한 순서(ordering)를 가지게 된다.

$$GE(1 - \epsilon) = \frac{1}{\epsilon(\epsilon-1)} \left[ (1 - A_\epsilon)^{1-\epsilon} - 1 \right] \quad (8)$$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lpha$ 값은 0, 1, 2인데,  $\alpha = 0$ 은 하위자산계층의 자산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고,  $\alpha = 1$ 이면 전 자산계층의 자산변화를 고루 반영하는 것이며,  $\alpha = 2$ 인 경우는 상위자산계층의 자산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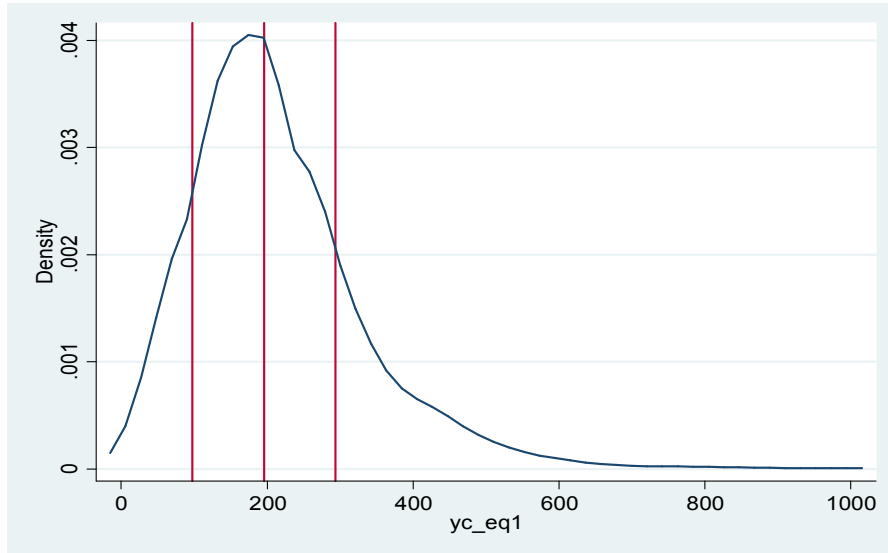
### 3. 풍요기준선(affluence line)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풍요선(affluence line)의 기준으로는 빈곤선의 10배(Rank and Hirchl, 2001), 중위소득의 150% (또는 200%)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계층, 50~150%를 중간소득계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150%를 풍요기준선으로 설정한다.



다음의 그림은 우리나라 2012년 소득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왼쪽 세로선은 빈곤기준선, 그리고 오른쪽 세로선은 풍요기준선을 나타낸다. 오른쪽에 위치한 풍요기준선의 밀도가 빈곤선의 밀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균등화된 경상소득의 분포



주: 균등화된 경상소득(월평균)이며, 중위값은 195.6만원. 빈곤기준선은 97.8만원, 그리고 풍요기준선은 293.3만원임.

자료: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만약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면 풍요선 이상에 위치한 가구의 비율과 소득점유율이 추세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에 걸쳐 조사된 가계자료를 대상으로 물가수준의 변화를 감안한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부유한 가구들의 소득을 분석하고, 앞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의 주어진 소득분포  $\mathbf{x} = (x_1, x_2, \dots, x_n)$ 에 대하여 Foster-Grier-Thorbecke (1984)의 빈곤지수(FGT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GT(\alpha) = \frac{1}{n} \sum_{i=1}^n \left[ \left( 1 - \frac{x_i}{x_{poor}} \right)_+ \right]^\alpha \quad (9)$$

여기서  $x_{poor}$ 는 빈곤기준선 (e.g., 중위소득의 50%),  $(z)_+ = \max(z, 0)$ , 그리고  $\alpha$ 는 양(+)의 값을 갖는 빈곤회피 파라미터이다.  $\alpha$ 가 0이면 빈곤율(headcount ratio)을, 1이면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을 나타낸다.

Peichl, et al. (2008)은 풍요에 대한 척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ext{RICH}(\mathbf{x}, x_{rich}) = \frac{1}{n} \sum_{i=1}^n f\left(\frac{x_i}{x_{rich}}\right), \quad (10)$$

여기서  $f(\cdot)$ 은 concave and strictly increasing function이다. concave function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양(+)의 특이항(즉, positive outlier)이 풍요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함수는 focus axiom, continuity axiom, monotonicity axiom, subgroup decomposability axiom을 만족시킨다. focus axiom이란 우리의 풍요지표(affluence index)는 풍요선 이하에 위치한 소득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continuity axiom이란 풍요지표가 소득의 연속함수(continuous function)이어서 소득의 미세한 증가에 대하여 풍요지표가 급격한 점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monotonicity axiom이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유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풍요지표 또한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axiom은 전체소득에 대한 풍요지표는 소그룹에 대하여 분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만족하는 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RICH}(\mathbf{x}, x_{rich}) = \sum_{m=1}^m \left(\frac{n_m}{n}\right) \cdot \text{RICH}(\mathbf{x}, x_{rich}) \quad (11)$$

여기서  $m$ 은 소그룹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위 식은 결국 전체적인 풍요지수는 소그룹별 풍요지수의 가중평균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풍요지수는 다음과 같다.

$$\text{RICH}(\mathbf{x}, \alpha) = \frac{1}{n} \sum_{i=1}^n \left( \left( \frac{x_i - x_{rich}}{x_i} \right)_+ \right)^\alpha \quad (12)$$

이 지수는 FGT지수로부터 유추된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모든 바람직한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풍요지수는 Chakravarty(1983) 빈곤지수로부터 유추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CHA}(\mathbf{x}, \beta) = \frac{1}{n} \sum_{i=1}^n \left( 1 - \left( \frac{x_{rich}}{x_i} \right)_+^\beta \right), \quad \beta > 0 \quad (13)$$

만약  $\alpha = \beta = 1$ 이 성립한다면 두 지수값은 일치한다. 또  $\alpha \rightarrow 0, \beta \rightarrow \infty$ 이라면 두 지표는 모두 풍요율(affluence headcount ratio)을 나타낸다. 만일  $\alpha > 1$ 인 경우, RICH(.)지수는 더 이상 concave하지 않기 때문에 CHA(.)지수가 RICH(.)지수에 비하여 유용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풍요선을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2배(i.e., 200%)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의 우측경계가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150%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풍요기준선은 빈곤기준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150%를 경계값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준이 최종적인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풍요기준선 부근에서의 소득밀도는 빈곤기준선 부근의 소득 밀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IV. 실증분석 결과

### 1. 불평등도 추이

다음의 <표 1>은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그리고 총소득에 대한 몇 가지 불평등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는 1-15차 모두에 걸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인데, 표본의 크기는 2,300여 가구이다.<sup>8)</sup> GE(2)는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Gini는 지니계수, 그리고 Sen 후생지수는 평균값\*(1-Gini)와 같다.

지니지수를 기준으로 본 총자산 불평등도는 2006년까지 등락을 보이며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총부채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거의 횡보 내지 아주 미미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불평등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

8) 이처럼 분석대상을 정한 이유는 장기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며, 매년 조사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도 추이

year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소득			
	GE(2)	Gini	GE(2)	Gini	GE(2)	Gini	GE(2)	Gini	mean	SenWelfare
1997							0.3721	0.4163	851.0	496.7
1998	0.8181	0.5545	5.5683	0.8265	1.5861	0.7671	0.3291	0.3969	1751.7	1056.5
1999	0.8183	0.5483	11.1797	0.8021	1.7722	0.6901	0.4851	0.3960	1935.9	1169.3
2000	1.0283	0.5592	2.6402	0.7909	1.2114	0.6450	0.3921	0.4170	2052.8	1196.8
2001	1.3038	0.5908	4.1396	0.7930	1.6351	0.6900	0.3404	0.3994	2443.0	1467.3
2002	1.1862	0.5662	4.0803	0.7936	1.6403	0.6653	0.3009	0.4025	2613.6	1561.6
2003	1.0202	0.5688	10.3369	0.8102	1.7640	0.6880	0.3695	0.4185	2844.2	1653.9
2004	1.0716	0.5877	3.2071	0.7895	1.2696	0.6532	0.3925	0.4180	2985.4	1737.5
2005	1.4317	0.6006	4.4076	0.7998	1.5446	0.6587	0.5979	0.4180	3280.7	1909.4
2006	1.8802	0.6341	2.3829	0.7831	2.0171	0.6844	0.3487	0.4287	4881.1	2788.6
2007	1.5235	0.6251	4.0461	0.8022	1.6055	0.6733	0.4910	0.4328	3608.3	2046.6
2008	1.4299	0.6229	4.5771	0.8195	1.4665	0.6606	0.4022	0.4348	3567.2	2016.2
2009	1.9666	0.6117	4.7520	0.8249	1.9625	0.6412	0.3837	0.4316	3732.0	2121.3
2010	2.3084	0.6038	4.4453	0.8373	2.6597	0.6404	0.3965	0.4289	3931.4	2245.2
2011	1.3289	0.5831	6.7689	0.8543	1.5036	0.6250	0.3186	0.4199	4017.9	2330.8
2012	1.8351	0.5941	9.3680	0.8463	1.5067	0.6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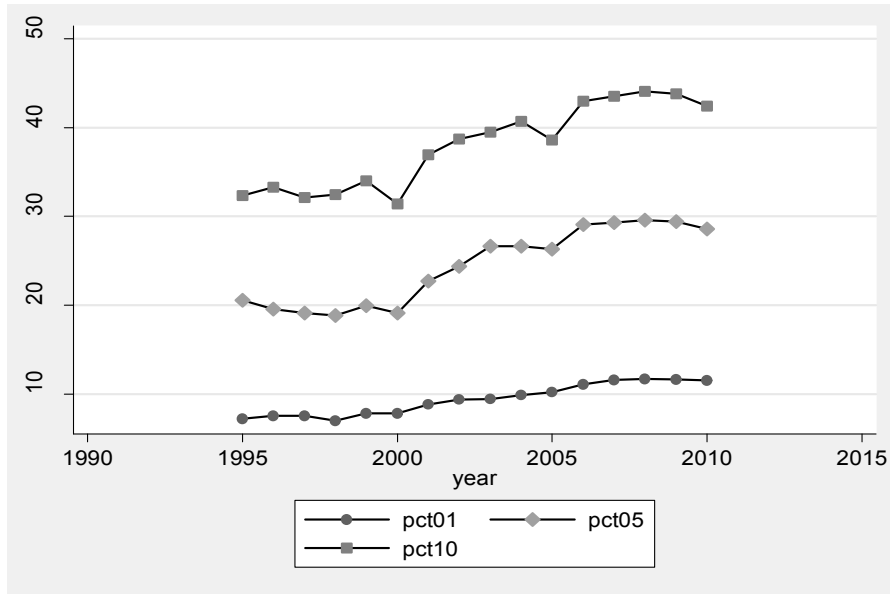
[그림 2] 총자산과 총부채의 불평등 추이



주: 지니계수 기준이며, 초기값인 1999=100으로 나타낸 것임.

자료: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 중 1~15차까지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 대한 분석임(약 2250 가구).

[그림 3] 상위소득 1%, 5%, 10% 점유율 추이



주: 국세청 자료에 파레토분포를 가정하여 구한 결과임.  
 자료: 김낙년(2010)의 부록에 수록된 통계 자료를 이용함.

## 2. 풍요율 추이

<표 2>는 소득에 대한 풍요선과 풍요척도를 정리한 것이다. 풍요선(affluence line)은 중위값의 150%이고, 풍요율(headcount ratio, HCR)은 소득이 풍요기준성보다 높은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 2에 따르면 풍요율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98년의 외환위기 시기와 2009년의 금융위기 시기에는 추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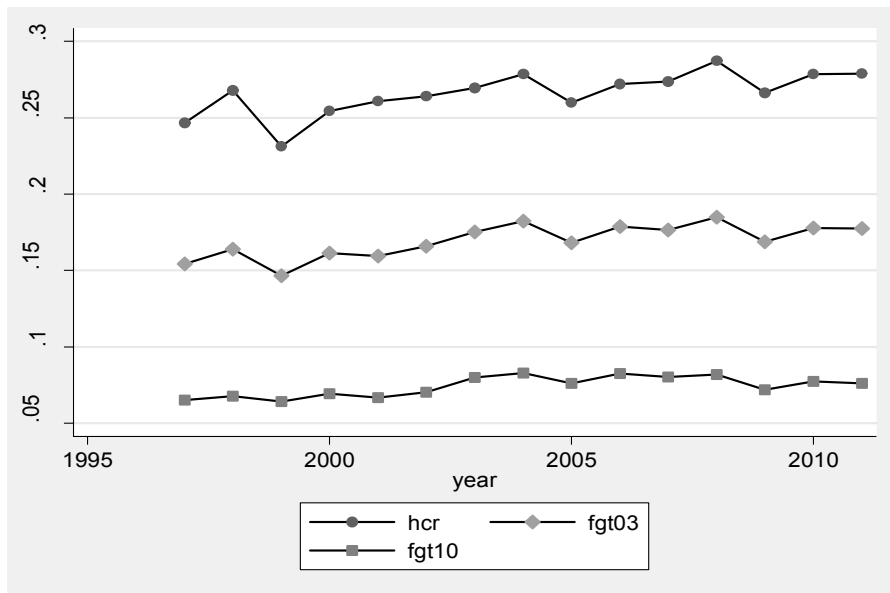
FGT(0.3)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풍요율과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FGT(3.0)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Chakravorty 지수의 경우에도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미미하게 또는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여기서는 1~1차 모두 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와는 달리 각 년차별로 응답한 사람들을 분석한다면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표 2> 소득 기준 풍요선과 풍요 척도

year	Rline	hcr	fgt(0.3)	fgt(1)	Cha(0.3)	Cha(1)	Cha(3)
1997	1159.2	0.2467	0.1543	0.0653	0.0237	0.0653	0.1304
1998	2344.5	0.2679	0.1641	0.0678	0.0243	0.0678	0.1369
1999	2545.6	0.2312	0.1467	0.0642	0.0235	0.0642	0.1268
2000	2700.0	0.2543	0.1615	0.0695	0.0254	0.0695	0.1375
2001	3219.9	0.2608	0.1596	0.0669	0.0243	0.0669	0.1338
2002	3476.2	0.2641	0.1660	0.0703	0.0253	0.0702	0.1409
2003	3607.3	0.2695	0.1752	0.0801	0.0294	0.0801	0.1555
2004	3735.0	0.2785	0.1823	0.0828	0.0303	0.0828	0.1616
2005	4156.9	0.2598	0.1682	0.0761	0.0281	0.0761	0.1476
2006	6300.0	0.2720	0.1787	0.0825	0.0302	0.0825	0.1596
2007	4554.0	0.2738	0.1764	0.0802	0.0297	0.0802	0.1543
2008	4530.0	0.2874	0.1848	0.0819	0.0300	0.0819	0.1605
2009	4936.3	0.2662	0.1687	0.0721	0.0261	0.0721	0.1442
2010	5122.9	0.2785	0.1779	0.0773	0.0281	0.0773	0.1531
2011	5310.0	0.2790	0.1775	0.0763	0.0275	0.0763	0.1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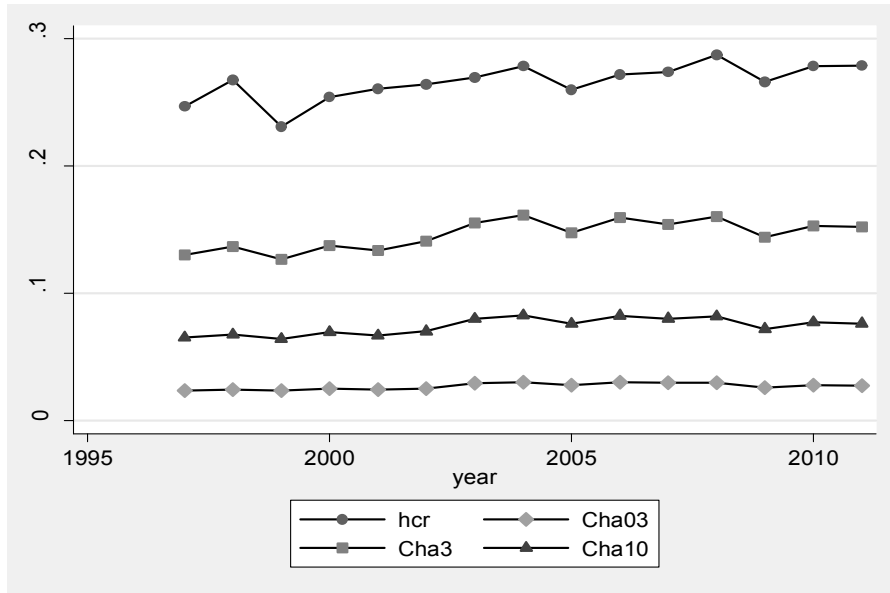
[그림 4] 풍요율과 Richness 지수 추이



다음으로 순자산에 대한 상대적 풍요선 (중위자산 값의 150% 이상) 위의 인구 비중과 순자산 불평등도 추이를 살펴보자. 풍요인구 비율은 2008년까지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FGT 지수의 경우에도 위치만 다를 뿐 2008년까지는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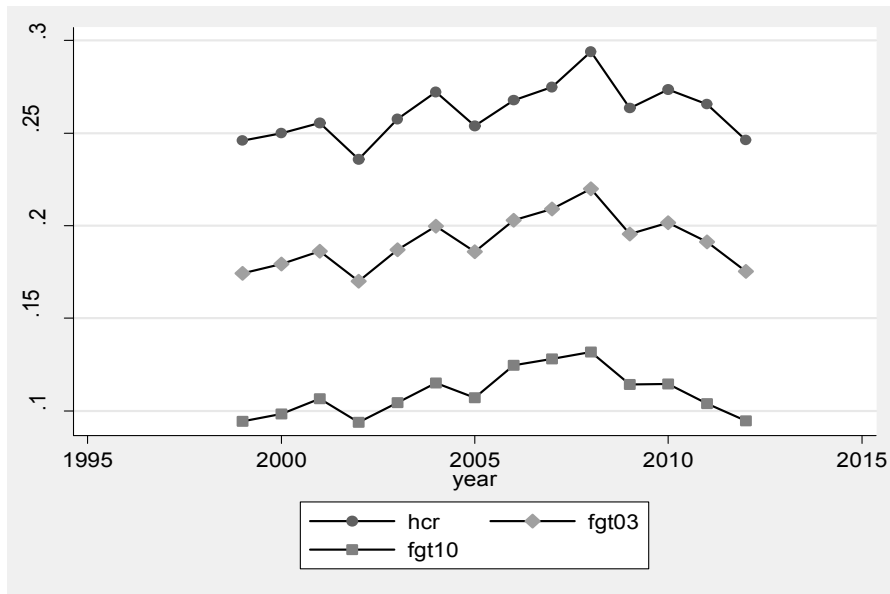
[그림 5] Chakravarty Affluence 지수 추이



<표 3> 순자산 기준 풍요선과 풍요 척도

year	Rline	hcr	fgt(0.3)	fgt(1)	Cha(0.3)	Cha(1)	Cha(3)
1998	.	.	.	.	.	.	.
1999	10,720	0.2458	0.1743	0.0943	0.0373	0.0943	0.2159
2000	10,800	0.2498	0.1792	0.0983	0.0387	0.0983	0.1710
2001	12,000	0.2555	0.1863	0.1066	0.0434	0.1066	0.1782
2002	13,000	0.2359	0.1699	0.0937	0.0372	0.0937	0.1614
2003	16,000	0.2577	0.1869	0.1045	0.0417	0.1045	0.1784
2004	17,600	0.2723	0.1996	0.1149	0.0467	0.1149	0.1918
2005	20,000	0.2538	0.1859	0.1071	0.0437	0.1071	0.1785
2006	20,000	0.2678	0.2030	0.1245	0.0525	0.1245	0.1993
2007	22,000	0.2748	0.2089	0.1280	0.0541	0.1280	0.2046
2008	23,500	0.2939	0.2199	0.1318	0.0549	0.1318	0.2138
2009	25,000	0.2635	0.1955	0.1142	0.0471	0.1142	0.1888
2010	26,000	0.2735	0.2015	0.1145	0.0461	0.1145	0.1946
2011	28,000	0.2655	0.1911	0.1040	0.0411	0.1040	0.1810
2012	30,000	0.2461	0.1752	0.0946	0.0375	0.0946	0.1649

[그림 6] 순자산 기준 풍요 인구 비중과 풍요율 척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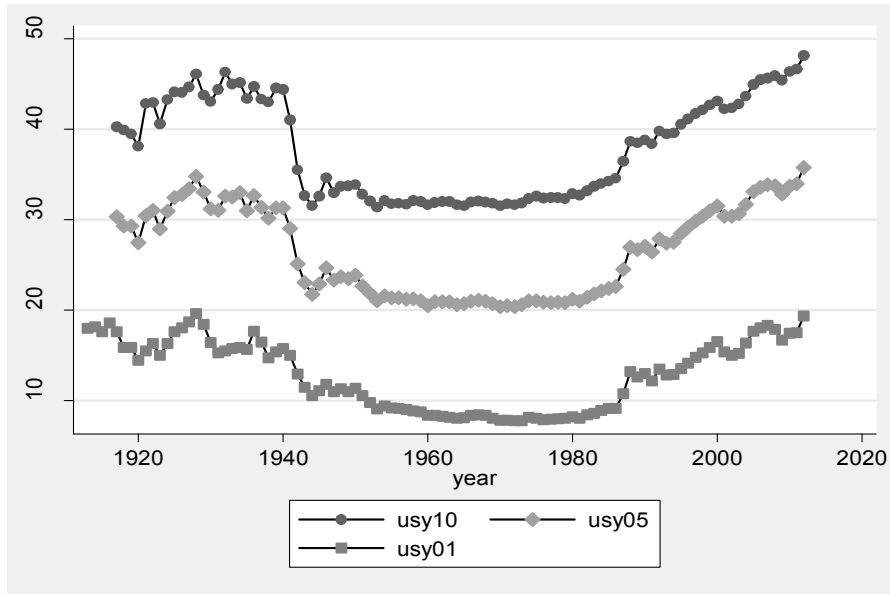
순자산의 이러한 변화 패턴은 소득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소득의 경우 완만하지만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순자산의 경우 2009년 이후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 3. 몇 가지 논의

금년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Paris School of Economics의 Thomas Piketty가 쓴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21<sup>st</sup> Century)’의 내용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고 있다. 소장파 경제학자인 Piketty는 소득분배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에 좀 더 직관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배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과거에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가계소득에 관한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왔는데, 이 방법의 문제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심각하게 축소되거나 아예 누락된다는 것이었다. 가계조사 자료의 대안으로 Piketty는 조세통계를 활용해 소득 분배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조세통계도 탈루소득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계조사에 비하면 고소득층의 소득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Piketty는 지니계수 등과 같은 척도로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신, 최상위 1% 또는 0.1%, 상위 5%, 10% 등과 같이 소득계층별 점유 비중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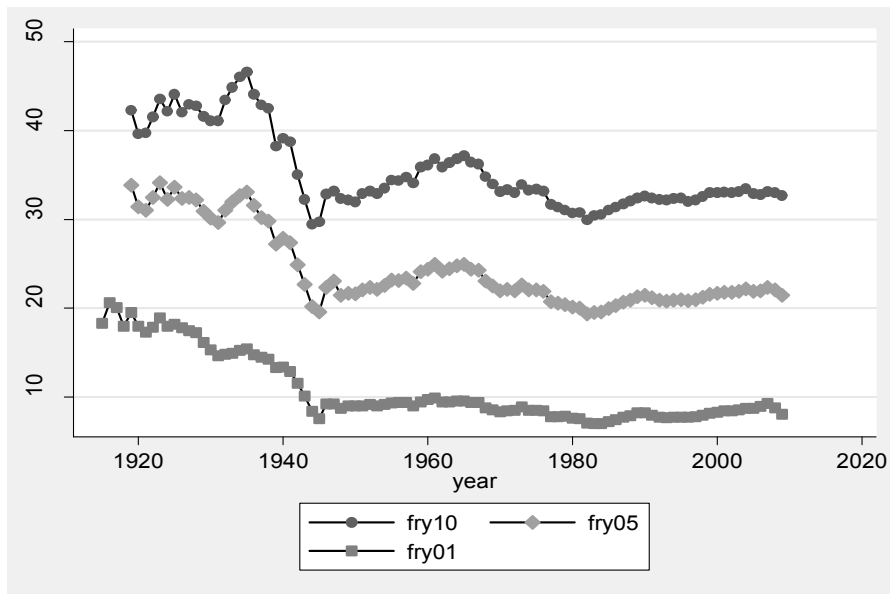


[그림 7] 미국의 상위소득 점유율 추이



자료: The World Top Inome Database,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

[그림 8] 프랑스의 상위소득 점유율 추이



자료: The World Top Inome Database,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

방대한 분량의 실증자료를 분석해 본 Piketty의 결론에 의하면 과거 3세기 동안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최상위 그룹으로 소득과 부가 집중되었다고 한다. 그

에 따르면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부의 세습으로 인하여 삶과 신분이 사전에 결정되는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또 그는 세습 자본주의를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에게 누진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Piketty의 실증 분석과 가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Piketty의 주장과 같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자산이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 그것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부의 배분은 시장경쟁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부유세 부과와 같은 인위적 부의 재분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상반된 견해도 존재한다.

## V. 요약 및 시사점

###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동연구원·고용정보원의 노동패널(KLIPS) 2~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계조사 자료는 상위소득자의 분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김낙년(2010)에서는 국제청 납세자 자료에 파레토 분포를 가정하여 상위소득의 분포를 연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위소득 점유율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위소득 점유율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총자산의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총부채의 불평등도는 반대로 높아지고 있었다. 지니계수로 본 순자산 불평등도는 2009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총소득 불평등도는 2007년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순자산에 대한 풍요율 추이는 소득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의 경우 완만하지만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순자산의 경우 2008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추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소장파 경제학자인 Thomas Piketty는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 원인은 장기적으로 최상위층에 소득이 집중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10)</sup> 또 Piketty는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100만유로가 넘는 재산에 대해 1%, 그리고 500만유로가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2%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또

10) 세습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부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독점으로 인하여 세전 자본수익률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자본과세를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정책적 시사점

Piketty에 의하면 현재 미국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심화 원인은 최상위층으로 소득이 집중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불평등 심화의 주원인은 대기업 경영진의 보수 증가 때문이며, 이는 부자 감세를 비롯한 정치적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최상위층으로 집중되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면 극소수의 최고 부자들만이 상속받은 부를 기반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세습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이도 그가 말하는 앵글로색슨계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 중에서도 외환 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지만, 통계청 등에서 이루어지는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얻은 지표는 분배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불평등의 정도는 가계조사 자료의 결과보다 더 심각하며, Piketty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과 부가 상위 1%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낙연 2012).<sup>11)</sup>

Piketty는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100만유로가 넘는 재산에 대해 1%, 그리고 500만유로가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2%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또 독점으로 인하여 세전 자본수익률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자본과세를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완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sup>12)</sup>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이나 부의 분배가 ‘혁신(innovation)이나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Piketty는 부의 편중에 대한 해법으로 최고 한계세율이 80%에 이르는 소득세제를 제시하고, 전 세계적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누진구조를 가지는 부유세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1970년대에 여러 나라들에서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80%대 이었으며,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가 부유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부유세를 폐지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낮추었다.<sup>13)</sup>

---

11) 한국의 소득 분배가 악화된 원인으로 고도 성장기의 종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자본의 수익률보다 낮아졌고,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으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의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과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2)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한국 부자들의 편법적 상속·증여를 차단하는 방안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3)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2006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80% 수준이었던 적이 있으나 점차로 낮아져서 현재는 38%이다. 뿐만 아니라 한때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많은 국가들도 단일세율 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2001년부터 13%의 단일소득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는데, 도입 1년 후 세수가 25.2% 증가하였고, 2년 및 3년차에서는 24.6%와 15.2%가 각각 증가한 경험이 있다.<sup>14)</sup> 이러한 사실에 영향을 받아 단일세율을 채택하려는 나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4> 북미의 단일세율 (캐나다, 미국)

State/Province	Flat Tax Rate	State/Province	Flat Tax Rate
Alberta (CA)	10%	New Hampshire	5% (dividend and interest income)
Colorado	4.63%	North Carolina	5.8%
Illinois	5.0%	Pennsylvania	3.07~6.994%
Indiana	3.4~6.53%	Tennessee	6% (dividend and interest income)
Massachusetts	5.3%	Utah	5%
Michigan	4.35~6.85%		

source: [http://wikipedia.org/Flat\\_tax](http://wikipedia.org/Flat_tax)

우리나라에서도 세제개혁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청에서 납세실적에 대한 표본 자료(scientific data)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도 미시-시물레이션 모형 등과 같은 선진 기법을 이용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제개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 분석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급증하는 사회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세 베이스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의 면세점 기준을 낮춘다든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지하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노력은 우리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4) 러시아 외에도 단일세율 세제를 채택한 나라로는 Andorra(10%), Albania(10%), Belarus(12%), Bolivia(13%), Bosnia and Herzegovina(10%), Bulgaria(10%), East Timor(10%), Estonia(21%), Greenland(37~46%), Hungary(16%), Poland (19%),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낙년 (2012), “한국의 소득 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낙성대경제연구소 WP Series No. 2012-03, 5월.
- 남상호 (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회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본.
- 남상호 (2012), “가구균등화지수가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발표자료, 2월.
- 남상호 (2013), “우리나라 중산층의 규모와 변화 추이 분석”,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발표자료, 2월.
- 남상호 (2013), “우리나라 빈곤과 풍요의 비교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5월.
- Aaberge, R. and Atkinson, A. (2008), “Top Incomes in Norway”, Statistics Norway Discussion Paper No. 552.
- Atkinson, Anthony, and Thomas Piketty (2007), Eds, *Top Incomes from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tkinson, A.B. and Piketty, T. (2007), *Top Incomes over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Atkinson, A.B. (2005), “Top Incomes in the UK over the 20th Centur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68(2), 325-343.
- Atkinson, A.B. (2005), “Comparing the distribution of top incomes across countri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393 - 401.
- Atkinson, A.B. (2007), “The Distrib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Kingdom 1908-2000”; in Atkinson, A. B. and Piketty, T. (editors) *Top Incomes over the Twentieth Century. A Contrast Between Continental European and English-Speak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chapter 4.
- Atkinson, A.B. and Jakob E. Sogaard (2013), “The long-run history of income inequality in Denmark: Top incomes from 1870 to 2010”, EPRU working paper 2013-01.

- Atkinson, A.B., and W. Salverda (2005), "Top Incomes in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over 20th century",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3), 883-913.
- Banerjee, A. and T. Piketty (2005), Top Indian Incomes, 1922-2000, *World Bank Economic Review* 19(1), 1-20.
- Coulter, Fiona A.E., F.A. Cowell, and S.P. Jenkins (1992), "Equivalence Scale Relativities and the Ext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 Journal, Royal Economic Society* 102(414), 1067-82.
- Dell, F. (2005), "Top incomes in Germany and Switzerland over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412 - 421.
- Foster, J., Greer, J. and Thorbecke, E. (1984),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52, 761 - 766.
- Kuznets, S. (1953), *Shares of upper Income Groups in Income and Sav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Leigh, Andrew (2007), "How Closely Do Top Income Shares Track Other Measures of Inequality?", *Economic Journal* 117, Features, f619-f633.
- Leigh, Andrew, and Tony Atkinson (2013), "The Distribution of Top Incomes in Five Anglo-Saxon Countries Over the Long-Run", *Economic Record*,
- Medeiros, M. (2006), "The rich and the poor: the construction of an affluence line from the poverty lin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 1 - 18.
- Moriguchi, Chiaki, and Emmanuel Saez (2008), "The Evolution of Income Concentration in Japan, 1886-2005: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4), 713-734.
- Parker, J.A., A. Vissing-Jorgensen, R. M. Blank, E. Hurst (2010), "The Increase in Income Cyclicity of High-Income Households and Its Relation to the Rise in Top Income Shares [with Comments and Discu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Fall, 1-70
- Peichl, Andreas, Schaefer, Thilo and Scheicher, Christoph (2006), "Measuring Richness

and Poverty: A micro data application to Germany and the EU-15," CPE discussion papers No. 06-11, University of Cologne.

Peichl, Andreas, Schaefer, Thilo and Scheicher, Christoph (2008), Measuring Richness and Poverty: A micro data application to Europe and Germany, IZA discussion paper no. 3790.

Piketty, T. (2003), "Income Inequality in France, 1901-199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5), 1004-1042.

Piketty, T. (2005), "Top income shares in the long run: An overview",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382 - 392.

Piketty, T. and E. Saez (2006),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6(2), 200-205.

Piketty, E., and E. Saez (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1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1-39.

Piketty, E.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Rank, M.R., and T.A. Hirschl (2001), "Rags or Riches? Estimating the Probabilities of Poverty and Affluence across the Adult American Life span", *Social Science Quarterly* 82(4), Dec., 651-669.

Roine, J. and D. Waldenstrom (2008),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on an egalitarian society: Sweden, 1903-2004",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366-387.

Saez, E. (2005),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ver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402-411.

Saez, E. and M. Veall (2005), "The Evolution of High Incomes in Northern America: Lessons from Canadian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5, 831-849.

Sen, A.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44, 219-231.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Database>:

Wikipedia, [http://wikipedia.org/Flat\\_tax](http://wikipedia.org/Flat_tax)